■ 제1차 쇄신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종단 내실 키우기 위해 '견제·균형 원칙' 적용

"신속한 법제화로 쇄신 성공해야"

청정성 회복 주안점 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밀운스님
승가공동체쇄신위원장

종단안정과 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긴급쇄저위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의 수장인 밀운스님(원로회의 부의장)은 이번 '조계종 1차 쇄신계획' 과 관련 "중앙종회와 통한 법제화로 쇄신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밀운스님은 쇄신계획이 공식 발표된 지난 7일 "이틀 전까지 세 차례 긴급회의를 통해 쇄신의 주요 골자를 마련했고, 쇄신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소위원장 도법스님을 중심으로 상세한 쇄신계획이 짜여졌다"고 말했다.

밀운스님은 이번 쇄신계획은 '승단 청정성 회복' 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에는 제단법과 상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테크 제도가 첫발고 왕확하게 쇄리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승려법 제4조제6는 승가공동체의 도덕성과 품위를 훼손시킨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같은 법조항을 강화시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쇄신계획에 이행보기 위한 중앙종회 차원의 법제화 작업이 신속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1980년대 사찰 봉은사 주지로 있을 때 사찰재정을 신도회에 넘겨준 경험이 있지만, 당시에도 법제화가 밑받침되지 않아 '자칫 생겨날 것이 생겨서 대참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걱정을 했다"며 "이번에 쇄신계획이 하나하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쇄신계획에 담긴 내용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신들)집단에 생겨내면 안된다"며 "저성과 쇄신은 이해 시켜야니 대행돼야"고 말했다.

하정은 기자 kmad79@daum.net

"종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 다할 것"

"종단근간 다시 세우는 법안 의견 조율해 종헌종법 제정"

보선스님
중앙종회의장

지난 7일 '사부대중의 공의를 통한 종단 운영' 을 천명한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에는 사찰운영위원회,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법 제·개정이 포함돼 있다. 쇄신안이 종단에서 종도들의 지지를 받으려 안하려면 궤해서는 중앙종회 입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기로 열리는 제13회 중앙종회 임시의회에서는 종단 쇄신안과 관련된 상도 있는 입법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중앙종회에 부여된 종단 대의기구로서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난 임시의회 시 아쉽된 안건과 쇄신안과 관련된 법안이 상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고 밝혔다.

이번 쇄신안은 법과 제도를 통한 사찰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사부대중이 왕여하는 법리적 방안을 제도화한 사찰재산회계명제정, 사찰운영과 관련된 의결기구 중 하나인 사찰운영위원회의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산중공의 복원과 공명선거 실현을 도모한 노력도 눈여겨 볼만 하다.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후무원과 교구가 분담해 후보자간 기회의 형평을 기하는 선거공영제, 지능적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자격기준 명문화,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보선스님은 "쇄신안에는 종단 근간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법안들이 담겨져 있다"면서 "그런 각계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임시종회에서 차분하지 못해다리도 공정회, 토론회 등을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조율해 종헌·종법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자재도 종회가 종도들이 원하는 법을 성안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정철 기자 hjc@buddp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한국불교사상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차 종단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재정과 인사 혁신

돈이 사찰을 살리지만, 사람을 망치는 주범도 돈이다. 사람이 만든 조직은 사람 때문에 흥하거나 망한다. 곧 어느 조직이나 돈과 사람을 잘 쓰면 내실이 튼튼해지고 외연이 커진다. 외부의 신뢰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마련이다. 종단 쇄신안에서 우선 주목할 점은 재정과 인사의 일대 혁신이다. 관중심 사찰들이 돈을 깨끗이 다루고, 이를 보는 구 지켜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의혹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자, 종단의 규모와 위상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재가불자에 대한 존중에서도 견해와 교법의 원칙이 돋보인다.

> "인사심의위 설치 '주목'
> 불전함 제외한
> 사찰의 모든 수입
> 영수증 발급 의무화"

> "검증된 사람들이 재정관리
> 재산손실을 입힘다면
>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다
>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 **사찰 재정공개**

올해(2012년) 직영사찰 및 직할교구 공할의 재정을 공개한다. 2013년 이후 교구본사 복별분담금 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 사찰 등 주요 사찰에 대한 재정공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분사은 사찰운영위원회 보고를 비롯해 사찰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등이다.

■ **문화재구역입장료 사찰 통합전자발권 시스템 구축**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 등산객과의 마찰을 빚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재원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 차원이다.

■ **국고보조금 사용 및 관리감독 강화**

국고보조금 교부 사찰의 주지 스님과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한다. 편법사용, 유용, 부적절한 집행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일이다.

■ **사찰운영위원회의 개정**

현재까지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사찰의 예결산, 각종 불사, 재산처분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사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가자의 위원 참여로 사부대중 공동체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종무행정학교 설치**

교계관리, 부동산 및 재산관리, 법률스쿨이 등 분야별 전문종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2013년 정식 설치를 목표로 2012년 하반기 시범 설치 운영한다. 양성된 전문종무원은 교구본사 특별분담금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사찰 등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 **종무원 인사순환시스템 도입**

중앙종무기관과 사찰 종무원 간의 행정상호 노하우를 공유하고 종무원들의 존중 정체성과 비전을 굳건히 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하반기 중앙종무기관과 직영사찰 간 인사순환을 시행하고 내년엔 직할교구 사찰 인사순환을 시행한다. 궁극적으로 중앙과 본말사 종무원을 단일한 인사체계로 묶는다.

■ **사부대중 공동체 운영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설치**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사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뒤따른다. 사부대중 공동체 운영을 기조로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대표, 결사주선본부장, 중앙종회 대표, 전국비구니회 대표, 총무부장, 재가자 대표로 구성한다.

종무원장은 스님은 위원회에서 검증된 스님에 대해 교역자 종무원으로 임용한다.

■ **신하기관 기관장 임명 시스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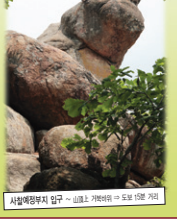
지방종무원장은 해당 산하기관 기관장을 출가자로 한정하지 않고 재가신분가에게도 기회를 부여한다. 전문성 경영능력 도덕성을 주요 인사기준으로 삼는다.

장영달 기자 lum@buddpo.com

山寺가 품어야 할 明堂부지

태고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광혜원 사찰부지 매각

사업 조성부지 입구 전경 (사측 중인 별장 60평, 용도변경 사용 가능)


사찰예정부지 입구 ~ 심마고 기벽리의 ⇒ 도보 15분 거리

충북 진천 광혜원 죽현리 14,000평 (한국 전통사찰 건립 최적지)

- ▶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산책로를 따라 산 정상 거북바위를 즐겨찾는 명승지
- ▶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 중심지 (음성 I.C 및 북진천 I.C 7분)
- ▶ 산 기슭 조망권이 빼어난 동남향의 쾌적하고 조용한 산사 신축예정지
- ▶ 중부권 최고의 사찰부지(불자 재력가 투자유망)

소유주(박종원) 010-5464-8282
(park-5959@hanmail.net)